

사실 아이들이 벌써부터 서로에게 보였던 애착에 비할 만한 것은 없었네. 폴이 떼를 쓰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, 비르지니를 그 앞에 보여주었고, 그렇게 비르지니가 시야에 들어오면 폴은 미소를 보이며 진정했지. 만약 비르지니가 아프기라도 하면, 폴의 울음소리가 그걸 알려주었고. 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금세 자기 아픈 걸 숨겼어. 폴이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말이야. 이 집에 올 때마다 나는 두 아이가 이 나라 관습에 따라 벌거벗고는, 아직 잘 걷지도 못하면서 마치 쌍둥이자리가 그려내는 모습처럼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한 채 딱 붙어 있는 것을 보곤 했네. 밤도 두 아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지. 밤은 불쑥 찾아들 때면 종종 두 아이가 한 요람 안에 누워 서로의 뺨을 맞대고 가슴을 딱 붙이고 양손으로 서로의 목을 감싸안은 채 서로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네.

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, 처음으로 터득해서 서로에게 붙여준 호칭은 오빠와 누이였지. 유년 시절 더없이 애정 어린 손길을 피부로 느낀 아이들은 이보다 더 나은 호칭일랑 모르는 법일세. 두 아이의 교육이라는 것도 남매간의 우애를 서로를 향한 필요로 이끌어주어 그 우애를 더욱 두텁게 했을 뿐이야. 머지않아 가게를 꾸려나가고, 청결을 유지하고, 밭에서 먹을 새잠을 차려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은 비르지니가 도맡게 되었고, 그 아이가 하는